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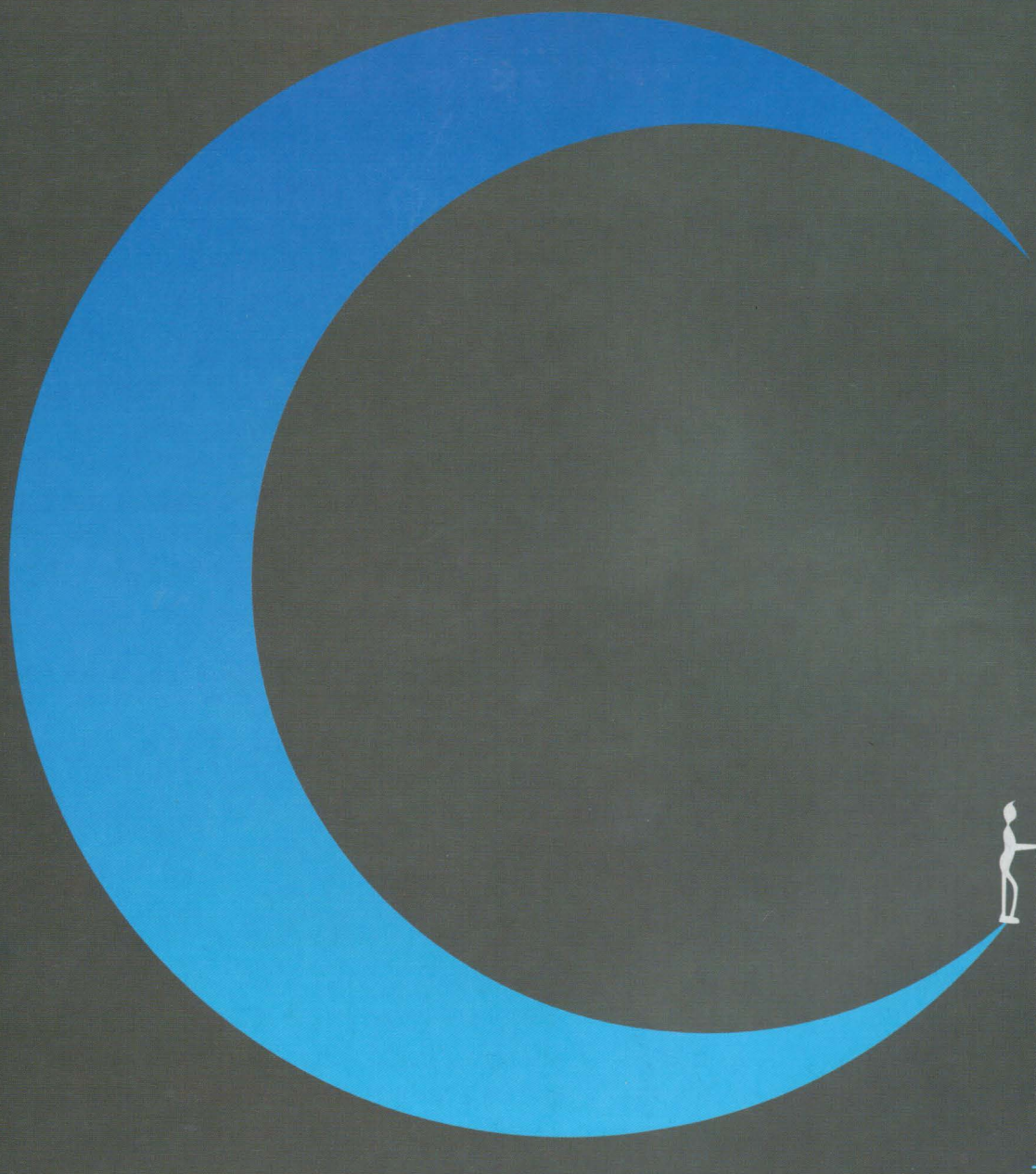


홍석주 조흥은행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IM11기)

CONTENTS

2 나침반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10 특별인터뷰 이현정교수	19 연구동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2002년 2월 졸업 논문 리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2002 SPRING Vol. 6 No.2 (통권19호)
3 특별기고 윤창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1~18 특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벤처 정신'	20~21 교환학생 인터뷰 이택준, 이상운, 양진희	발행일 2002년 4월 20일
4~5 테크노뉴스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생이 말하는 벤처 정신	22 인턴십학생 인터뷰 김혜원	발행인 박성주
6~7 교수코너 이병태 교수, 이창양 교수	- 벤처 정신 배양 프로그램	23 문단 양윤석 경영공학 석사 2년	편집인 이재규
8~9 학생코너 - 경영공학 학·석사 학위 연계과정 -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생활의 Tip	- 벤처 정신으로 우뚝 서다	24~26 최고경영자과정뉴스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 졸업생이 말하는 현장의 벤처정신	27 이모저모 스포츠 MBA	TEL (02) 958-3246
	- CEO 재학생이 말하는 벤처정신		FAX (02) 958-3010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263-7534

Paradigm Shift of Communication



Online Marketing System
Web Business System Renewal
System Maintenance
e-Business Modeling & Market Research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더 큰 세상,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

Internet Consulting Group

(주)인터넷컨설팅그룹 <http://www.icgst.com> 서울시 중구 초동 106-9 골드타워 11층 TEL : 02-3406-2500 FAX : 02-3406-2669

ICG

CEO의 자질



박 성 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요즘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이벤트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상 최초의 MBA출신 대통령인 탓인지 아니면 우리

가 겪었던 IMF위기 탓인지 상당수 후보들이 CEO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천 타천의 후보 중 그 누구도 제대로 된 CEO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CEO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의미하고 국가도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나 선언만으로 CEO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CEO의 자질은 무엇일까?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좋은 경영"에 대한 설문결과는 경영에 대한 그 동안의 생각들이 신경제 시기를 거치며 혼란스러웠으나 결론적으로 '경영의 근본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CEO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정직(Honesty), 검소(Frugality), 준비성(Preparedness)이다.

정직은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엔론 사태 이후 기업 투명성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는 법을 잘 지키자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문제가 많다는 일본의 경영이 예외적으로 미국의 본사를 이긴 예인 세븐 일레븐 저팬의 스즈키 도시후미 회장의 힘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의 솔직함에서 나온다고 한다. 솔직한 마음은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근검 절약은 풍요의 시대에도 여전히 미덕이다. 어려울 때에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나 이보다는 항상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닷컴 붐이 한창일 때 테헤란 벨리가 풍성 거리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젊은 창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보았다. 반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Sam Walton)의 낡은 시보레 승용차 얘기는 전설 같은 얘기이나 월마트의 꾸준한 성장이 이러한 검약정신과 무관하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선호한다'는 프랑스 생화학자

파스퇴르의 말처럼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 진다고 믿었던 신경제의 도제들은 기왕 이렇게 빠른 상황에서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했다. 그러나 노키아, HP, EDS, 에머슨 등 많은 기업들이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CEO 시간의 60%까지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쏟고 있다. 경영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결국 준비된 자와 준비 안된 자의 차이는 있게 마련인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CEO의 자질로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많이 든다. 도덕성은 정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전문성과 개혁성이 추가되는 자질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과 희생정신이 아닐까 싶다. 본인은 도덕적으로 전혀 거리낌없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협조하라고 한다면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먹을 것이 생기는 대로 자기 입에 가져가며 서로 나누어 먹자고 한다면 한번 속지 다시는 속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희생정신이 우리나라 기업의 CEO나 CEO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한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CEO를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전통적으로 CEO는 '보스'로 인식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스와 리더에 관한 많은 얘기 중에 윌로프(S. Uroff)의 다음 얘기는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스는 밀어붙이나 리더는 이끈다. 보스는 권력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협력에 의존한다. 보스는 '나'라고 하고 리더는 '우리'라고 한다. 보스는 공포를 낳고 리더는 신뢰를 낳는다. 보스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나 리더는 어떻게 하는 지를 보여준다. 보스는 한을 쌓고 리더는 열정을 키운다. 보스는 불평을 잠재우고 리더는 잘못을 고쳐준다. 보스는 일을 지겹게 만들고 리더는 일을 즐겁게 만든다."

당신이 CEO라면 또는 만약 CEO가 된다면 어떤 타입인가? 보스형인가 리더형인가?

정보기술혁명과 KAIST MBA

윤 창 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정보기술혁명의 범위와 파급효과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우리의 관심을 끈 가장 큰 이슈들 중 하나다. 인터넷의 상용화와 함께 촉발된 투자열기는 한때 나스닥 지수가 5,000을 넘는 등 최고조에 달하면서 신경경제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하였다. 하지만, 거품이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보기술혁명이란 개념도 일부 학자들과 투자자들의 손에서 한껏 과장된 것이라는 회의도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정보기술혁명에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의 대가인 브라이언 아더(Brian Arthur) 교수의 연구결과에는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산업혁명기인 18세기와 19세기 중반의 영국에서도 최근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1761년에 워슬리(Worsely)의 탄광과 런콘(Runcorn)의 방직공장을 연결하는 첫 운하가 건설된 이후 약 20여년간 영국 각지에서는 운하건설 투자가 과열되었으나 결국 거품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한편, 1825년 증기기관차가 개발된 이후 약 20년간은 철도 투자 붐이 전 영국을 휩쓸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았으며, 심지어는 거의 같은 노선에 10여 개의 건설계획이 제시되어도 투자자들이 물리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거품붕괴는 1845년에 일어났는데,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자살하는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으며, 철도주식 가격은 85%나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오늘날의 유사성이 놀랍다면, 이후의 전개과정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운하는 거품이 붕괴된 후에도 10년간 두 배로 늘어났으며, 철도는 1845년 이후 65년간 무려 10배로 늘어났다. 진정한 변화는 오히려 거품붕괴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물론, 과잉기대와 묻지마 식의 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수익률 분석에 기초한 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필자는 진정한 정보기술혁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날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컴퓨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품이 된지 오래고, 인터넷에도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존재가 그 자체로서는 전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난 후에야 완수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노력과 전제조건 없이 간단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뿐 아니라 인프라, 기업조직, 사회문화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사학자인 폴 데이비드(Paul David)에 의하면 발전소들이 건설된 후에도 공장생산에 전기가 제대로 활용되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거대한 중앙집중식 증기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새 기계에 맞게 바꾸려면 공장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스텐포드대학의 팀 브레스난(Tim Bresnahan) 교수 등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도입 역시 분권화, 유연화 등 조직과 경영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정보기술혁명이 결실을 거두려면 기술과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인재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진 최고 경영자들과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러한 일들을 국내의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정보기술혁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또 당부하고 싶다.



MBA 취업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호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2월 15일 대전 KAIST 본원 대강당에서 2001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사(산업경영학과) 32명, 석사(5개전공 MBA 및 경영공학) 182명, 박사(경영공학) 16명이 배출됐다.

이중 MBA 졸업생들은 전원이 취업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조를 보였다. 100%에 가까운 97%의 취업률을 나타낸 것. 5개 MBA 전공 졸업생 취업결과에 따르면, 전체 145명중 취업 137명, 진학 2명, 창업 1명으로 현재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졸업생은 5명에 불과해 97%의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취업자들중 출신이나 자격증 공부 등으로 인한 자발적 실업상태를 제외하면 거의 100% 취업을 이룬 것이다. 137명의 전체 취업자중 회사로 복귀한 기업체 추천입학자 73명을 제외한 64명의 취업회사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금융 및 신용평가기관 23명,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12명, 연구소 및 비영리기관 11명, 컨설팅업체 10명, 제조 및 유통분야 8명 순이다. MBA전공별로는 경영정보, 환경경영, 통신경영이 전원 취업했다. 특히 맥킨지 컨설팅에 취업한 테크노경영MBA전공의 김인아씨를 비롯해 학생들의 취업 선호도 1위 업종인 컨설팅분야에 점차 진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취업결과와 함께 2002학년도 MBA과정 신입생 205명의 경력분석 결과, 2년 이상 직장경력자가 전체의 84%인 173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나 증가한 수치로 이처럼 학부졸업생들의 비중이 미미해진다는 것은 국내 MBA스쿨도 경력을 중시하는 외국 MBA스쿨처럼 진정한 직장인들의 경력관리 코스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외국 MBA스쿨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경력 외의 올 신입생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였으며, 남녀비율은 남자 85%(175명), 여자 15%(30명)였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신 박사, 홍콩 시립대 이어 싱가포르 국립대 진출

지난 2000년 9월 홍콩시립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재남 박사에 이어 올 3월 박기우, 김희웅 박사가 싱가포르 국립대 정보시스템학과 조교수로 채용됐다. 이번에 두 명의 박사가 함께 진출하게 된 싱가포르 국립대는 연구실적이나 전임교수 규모면에서 아시아 1위, 세계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보시스템분야에서는 손꼽히는 대학. 대우 역시 최고 수준으로 이들은 미국 정보시스템분야 A급 신입 조교수에 버금가는 1억원대의 연봉과 주택, 자녀교육비, 의료보험 등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받게 된다.

박기우 박사는 연세대 학사와 남가주대 경영대학원MBA를 거쳐 작년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포항공대 학·석사 출신인 김희웅 박사는 97년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후 MIT 슬로건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아울러 김희웅 박사와 이재남 박사는 97년과 98년 ICIS 국제학술대회의 박사과정 컨소시움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받기도 했다.



(왼쪽부터 박기우박사, 김영걸 지도교수, 김희웅박사)

한민희 교수 한국마케팅학회장 취임



테크노경영대학원 한민희 교수가 3월 9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마케팅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민희 신임 회장은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 제1회 매경 경영학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전국 마케팅분야 교수 및 학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마케팅학회는 학술행사를 주관하고, '마케팅 프런티어상'을 시상하는 등 학문적 발전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 맥킨지 공동 연구결과 '한국기업을 위한 IT전략보고서' 발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맥킨지는 한국기업의 IT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3월 중순 '한국기업을 위한 IT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해 3/4분기에 국내 100대 기업중 25개사를 대상으로 IT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업의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등이며 참여기업은 금융기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한국에서의 IT관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T투자수준 역시 일본 및 서

유럽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이며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낮았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일본 및 서유럽 투자성장률의 거의 2배 수준인 매년 20% 정도 IT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한국 기업들에 제안했다. 먼저 IT예산을 확충하고, 경영진에게 IT조직의 총괄, 관리를 맡김으로써 IT조직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조직부문에서는 연방제 IT조직 관리모델을 채택해 IT추진과제와 비즈니스 부서와의 확실한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IT추진과제는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기업 경영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맥킨지와 전경련 공동 주최로 세미나도 개최했다. 지난 3월 19일 전경련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영걸 교수와 맥킨지 Business Technology office 앤드루 몰레 파트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MBA Director로 조연주 박사 임용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4월 1일,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MBA Director로 조연주 박사를 임용했다. 조연주 박사는 연세대에서 교육학 학사와 사회학 석사를 거쳐, 1995년 5월 미국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학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국내 KT에서 연구개발본부 선임연구원,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교육공학회 이사와 한국산업교육학회 이사로 재직중이다. 조 박사는 앞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 개선 시스템 구축, 학생 취업 지원, MBA 관련 프로그램 기획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 관심 분야는 인적자원개발(HRD)이며, 여름학기와 겨울학기에 이 분야를 가르칠 예정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국제협력 강화

박성주 대학원장은 미국 유명 MBA스쿨과의 상호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해외출장을 다

녀왔다. 이번 출장에서 박성주 대학원장은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 UC버클리 비즈니스 스쿨, MIT 슬론스쿨, UCLA 비즈니스 스쿨, UC어바인 비즈니스 스쿨 등의 책임자를 만나 향후 교류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올해 들어 프랑스 ESCP-EAP European School of Management, 독일 University of Mannheim,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Business and Management와 학생 및 교원교환을 골자로 하는 공식협정을 맺었다.

2002년 봄 박사졸업생, 학교사랑의 기념식수 행사



2002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16명의 졸업생들은 정성을 모아,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4월 5일 식목일에 모여 정문 앞에

10그루의 주목을 심고, SUPLEX경영관 앞뜰에 무궁화 등의 꽃나물을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들 외에도 이재규 교수, 재학생, 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3회-2002년 봄의 테크노인 수상자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김 선 혜 씨



지난 4월 3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제3회 테크노인으로 김선혜 씨가 선정되었다.

김선혜씨는 94년 9월부터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을 담당해 이과정을 국내 최고수준의 정보화 비학위과정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

를 하였고,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CKO 과정의 지원은 물론 비학위과정 운영그룹의 주무로서 최근 개설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전문가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초기 기반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상을 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도 팀웍을 발휘해 준 동료들과 AIM과정을 이끌어 주신 교수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왜 들어 오셨어요?”



이병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얼마 전 인터넷의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직장인들의 80%가 이민을 가고 싶고 한 대학의 설문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싶다는 대답 또한 그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나는 10년 넘게 미국에 살다가 올 봄에 귀국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못나가서 난리인데 왜 들어왔나?”는 질문을 받으면서 난감해 하곤 한다. 그러면서 분명 우리의 국민의식의 현주소는 지극히 병적이라고 진단한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자부심을 지니지 못하고 혐오하는 현상은 국가 개인에게 모두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현상은 매우 기이한 것임에 틀림없다. 작금의 IMF 사태에 따른 기복도 있고 최근의 경기의 급속한 냉각과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기인한 불안감도 있지만 분명 현재의 한국은 거시적으로 보면 ‘단군 이래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돌이켜 보자. 국민의 70-80%가 산 허리를 마구 헤쳐서 농사를 짓고도 식량이 없어서 모래알 씹히듯 하던 통일벼를 만들고는 온 국민이 환호하던 시절이 고작 20여년 전이다. 오늘 8% 안 되는 노쇠한 농업 인구가 재배한 쌀이 남아서 고민이다. 100억 수출, 1000불 소득이 유신 독재를 감수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던 적이 또 30여년 전 일이다. 그 100억불은 이제 한 기업의 수출 물량도 안 된다. 정부의 홍보성 광고에서도 보듯이 역사 이래로 처음 우리는 몇몇 상품에서 세계제일을 달성하고 있기도 하다. 언제 우리가 세계적 상품을 가지고 세계적 기술을 자랑해 본적이 있을까? 현대 왜 우리는 우리가 이룬 이 성취를 자랑하기 전에 이땅에 대한 자부심을 그렇게 빨리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한국의 정부 그리고 정치 시스템(집단)이 우리가 세계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80년대에 여행자화

이후에, 그리고 인터넷등에 의해 정보가 자유로이 넘나드는 사이에 한국의 중산층은 미국, 캐나다 등 소위 선진국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들의 기대 수준은 수직 상승했다. 또한 아직은 소수이긴 해도 그러한 선진 국가에서의 삶은 이제 선택 가능한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국적도 탄생과 더불어 주어지고 바꿀 수 없던 독점에서 경쟁으로 이전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철저히 만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아직도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오만함과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양질의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국가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체념과 혐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교육이민’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 집단이 국민의 기대치 관리에 실패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소득 일만 달러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선진국의 그것들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 엘리트들은 끊임 없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을 해왔다. 선거 때는 차치하고 라도 OECD 가입, 88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으려는 나라인양 국민의 기대치를 올리는 일을 잊지 않고 감행해 왔다. 국가의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하지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국민의 비용과 희생은 국가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기업과 개인이 진 부채를 국가가 세금으로 탕감해 주고, 국제 가격과는 턱없이 비싼 농산물을 세금으로 가격을 유지 시켜주고, 정부가 민간과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시장과 경제를 왜곡하는 예는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도 국민을 지나친 정부 의존형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국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정부에게 떼쓰면 된다는 심리를 갖게 되었다. 책이 안 팔려도, 영화 관객이 없어도, 과외가 기승을 부려도, 노사 문제가 발생해도, 쌀 값이 떨어져도, 기름값이 올라도 정부의 탓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꽤도난

마 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다원화 해졌고 경제는 커져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럼 이제 어찌 할 것인가?

경쟁 시장에 맞게 고객지향의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고객지향의 서비스는 반드시 최상의 품질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럴 능력도 단기간에는 없다. 고객은 비록 최상의 품질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존중되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만족하게 된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못지 않게 기회의 균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 되어야 한다. 또 마땅히 국민에게 기대치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용기 있고 뚝뚝한 정치 지도자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기를 바라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호소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일방적인 회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할 일과 시민과 민간 경제가 할 일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이 정부의 주장은 이미 "강한 정부"라는 것에서 과욕과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점의 좋은 정부는 "작고 또 작은" 정부 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하여야 한다. 국민을 신나게 하는 일은 최고의 선진국에 곧 살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가를 만드는 데 내 자신도 참여하고 기여 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 내 마을을,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를, 내가 뛰어 놀 공원을 우리 스스로 짓고 가꾸면 보람 뿐 아니라 어떠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턱 없이 비현실적인 환상도 버리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기점이 이 사회에 도달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가를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크게 치루는 국민이다. 남자는 군대를 보통의 경우, 2년 이상 꽃다운 청춘에 다녀 와야 하고 청소년기의 모든 세월은 규격화되고 억압된 교육에 목을 매고 살아야 하고 경제 사회 질서는 몇 년이 멀다하고 재편성되는 격변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들에게 이 곳에 사는 이유가 이 곳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모두 너무 비참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육을 핑계된 이민은 계속될 것이고 "왜 들어오냐"는 질문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땅의 정치 엘리트들이 대답할 때이고 이땅의 주인들이 주인됨의 자부심을 회복할 때다. 아니면 이땅의 우리는 영영 패자들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는가?



이창양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창양교수, 우수강의상 수상

이창양 교수가 KAIST 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KAIST 우수강의상이란 1년 동안 개설된 강의를 대상으로 수강자들의 강의평가를 기초로 한 통계적 수치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교수에게 주는 상. 특히 이창양 교수는 2000년 부임 이래, 단 기간에 우수강의상을 수상하여 학문적 열정과 교수법 등을 학생들로부터 검증받게 된 셈이다.

이창양 교수는 지난해 '한국경제론', '기술혁신이론 (Economics of Innovation)', '미시경제학'을 개설하여 좋은 강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경제론' 과목은 경제성장 모형의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상황 진단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강자들에게 국제적인 경제감각을 익히도록 경제이슈 분석을 통해 국제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강의상 수상과 관련하여 이창양 교수는 "좋은 강의는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특히 교수의 연구 내용과 지식이 강의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단순한 지식을 뛰어 넘어 교수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스며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새 식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학사 과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과 대학/학부(School)로 경영공학전공 학사과정은 석·박사 과정과 연계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전산학 등의 기본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 경영 및 사회 경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고학년에는 경영정보시스템, 통신경영 등 정보통신 관련 교과목들과 경영전략, 투자관리, 벤처경영 등 심화/통합 교과목들을 통해 정보경영 등 경영진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01년 학·석사 학위연계 과정 모집요강 중)



경영공학 학·석사 학위 연계과정

경영공학전공 학·석사 학위연계과정(이하 학석사과정)이 2002년 봄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학부 과정 수업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테크노인들의 관심들 받고 있는 학석사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석사과정 학생들이 만나 서울 캠퍼스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석사과정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과정 입학 전형을 미리 실시하여 학사학위 취득 후 바로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사과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한 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경영공학 학·석사연계과정 시험을 보아 신입생을 선발한다.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에는 입학시험 합격자 17명과 9명의 학부과정 학생이 등록되어 수업을 받고 있다.

■ 학사 운영

학부 과정동안의 지도 교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교수의 승낙을 받아 배정이 되는 데, 이는 차후 석사 과정 진학시의 전공과 연구실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 진다.

금번 봄학기에 서울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부 과정 강의는 총 5과목이다. 석사 과정의 전공 과목을 학사 전공 과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학부 과정의 총이수 학점은 130학점이고, 2학년까지 이수 권장 학점은 74학점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매학기 5과목 정도가 개설 될 경우 학사학위 조기 취득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서울에 오니 교수들을 항상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 좋지만, 한 편으로는 개설되는 강의 수가 너무 적고 교양과목은 개설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하였고, 그 대안으로 타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 학교 생활

현재 학부 과정 강의는 모두 105호에서 열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강의실에서 같은 강의를 함께 수강하고 있다.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가 시설이 깨끗하고 좋지만, 학·석사 과정 학생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는 학생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해 논의하고 요구 사항들을 건의할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우나 동문회 이외에는 선배들을 알 기회가 적은데,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 MBA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취재 정리 | 송재현기자

신입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학교 생활의

Tip

먼저 학교 생활을 한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이 신입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코너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든든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들려주는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Tip을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다.

Tip 1

교과목 수강 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꼭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Tip 2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과 자주 토론을 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 하지 말고 주위에 물어보세요.

Tip 3

수업 시간 및 팀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강의에 참가하세요. 또한, 강의실 뿐 아니라 교과목 포럼을 통한 활발한 사이버 토론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Tip 4

도서관을 잘 활용하세요. 개인 연구실에 있다 보면 자칫 도서관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학생들은 1인당 연간 3권까지, 만약 지도교수 확인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10권까지도 도서 구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전자 저널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머리를 식히며 가볍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Tip 5

공부 외에 취미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체력이 있어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쪼개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골프, 헬스 등)

Tip 6

각 과목별 내용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 지식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지금 막 배운 내용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형식으로 적용될지, 그 결과는 무엇이 될지,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 등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비평해 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Tip 7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각자의 바쁜 생활 때문에 자칫하면 얼굴도 못 볼만큼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Tip 6

수업 교재들 이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경영학 책들(번역서 포함)을 많이 섭렵하세요.

Tip 9

선배들, 동기들과 한 잔의 커피에 가득 담긴 정을 느껴 보세요. 때로는 선배들, 동기들과 차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공부에 지칠 때는 서로가 힘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충실한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지요.

Tip 10

학업 계획을 세우세요. 자신의 관심 분야가 정해졌다면, 수강 과목 및 각 과목별 팀 프로젝트 설계를 할 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 마케팅에서는 제약회사 사례, 조직에서는 유전공학 벤처의 조직전략, 재무회계는 환경미생물 개발 업체의 회계처리 방안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취재 정리 | 김문웅기자

자,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도 미래의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학교생활 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지요?

끝으로, 후배들에게 한 선배가 전하는 진심어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곳에 입학하시면서 가졌던 꿈을, 졸업하시면서 꼭 현실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믿고 미래를 위해 살아라. 그곳에 당신의 삶이 있다”

“여행과 문화체험의 경험 살려 비교문화 경영학을...”

Interview



이현정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3월 1일 영국 런던 정경대(LSE :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이현정 교수를 첫번째 여교수로 맞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심리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LSE에서 조직 행동론으로 박사학위(99년)를 받았으며 박사학위 취득에 앞선 1998년 LSE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어 지금까지 재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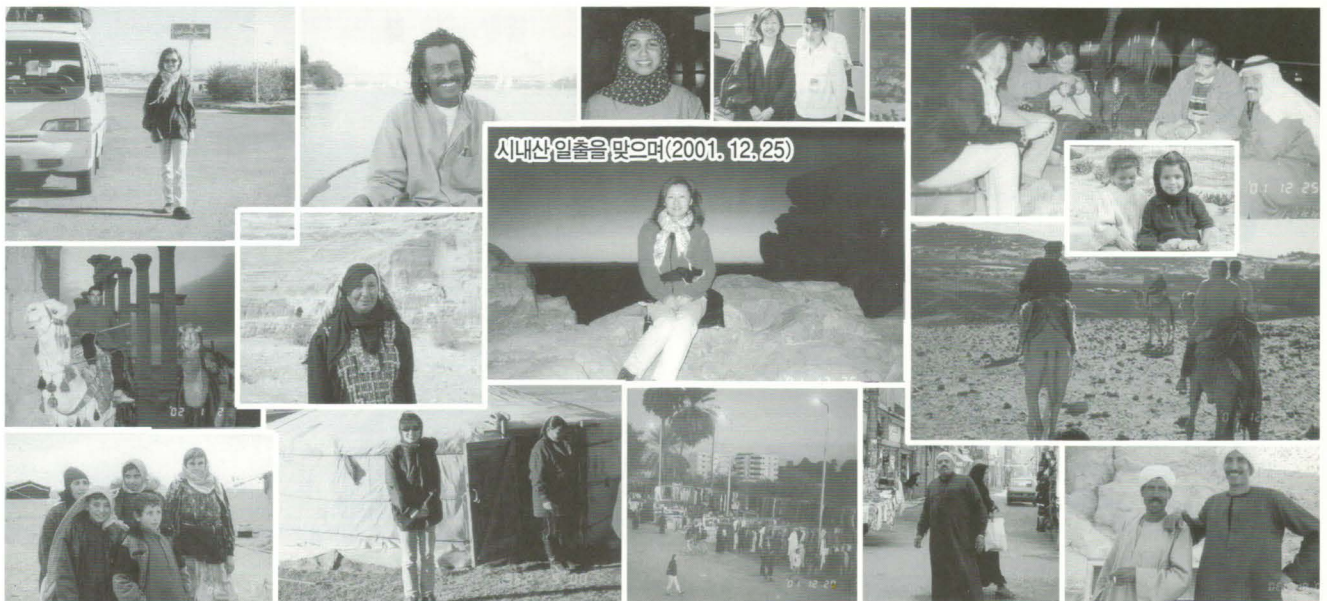
이 교수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LSE 교수직을 마다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활발한 연구문화에서 신선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0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국을 찾았을 때, 우연히 전공이 같은 김영배 교수를 면담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 나눈 많은 학문적 논의가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해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

귀국하자마자 봄학기부터 ‘리더쉽과 조직관리’ 과목을 강의하는 이 교수는 “학생이라고 무조건 학습에만 몰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한 확실한 재충전이야말로 창의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창의적 시각을 강조하는 이 교수만의 확실한 재충전 방법은 바로 여행과 오페라. 1994년 유학 초기 학교에서 공연장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살려 음악회, 전시회, 연극 등 온갖 공연을 가리지 않고 섭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오페라의 참 맛을 경험한 ‘문화적 세레’를 입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런던은 물론 유럽 주요 도시의 오페라극장을 섭렵하며 오페라에 푹 빠져 살았다. 다양한 작품을 경험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작품세계 등 관람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오페라 칼럼리스트로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오페라와 함께 방학을 맞으면 중동, 중국, 몽골, 시베리아 등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이 교수는 “여행을 통해 낯선 문화를 접해보면 세계인들의 역사와 생활방식을 읽을 수 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다음 후보 여행지로는 이란, 캄보디아, 페루 등을 생각 중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경험을 살려 ‘비교문화경영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조직이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 연구에도 열중이다. 문화적 소양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이현정 교수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기대해본다.



Frontier Special



v · e · n · t · u · r · e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벤처 정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생이 말하는 벤처 정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벤처 정신 배양 프로그램

테크노경영대학원 벤처 정신으로 우뚝 서다

졸업생이 말하는 현장의 벤처정신

CEO 재학생이 말하는 벤처정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벤처 정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벤처 정신'의 요람이고 산실이다. '설립'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영의 조화'를 말하는 선구자적인 역할, 그 자체도 벤처 정신이라는 무한한 도전 정신의 발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 KAIST가 배출한 많은 성공한 벤처 기업인들과 벤처를 꿈꾸는 많은 KAIST인들, 그들은 KAIST가 기른 벤처 정신의 산 증인들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벤처 정신은 과연 무엇이며, 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벤처 정신을 불어넣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성공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졸업생 벤처 기업인을 소개하고, 학교와 벤처 기업의 두 가지 직업을 가진 CEO재학생들의 눈을 통해, 진정한 벤처 정신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명해보고자 한다.

v e n t u r e

1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혹은 벤처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재학생 중 대부분이 졸업 후 희망진로에 대해서 일반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 등 비교적 안정적인 곳을 선택했지만, 전체 설문자의 14%는 졸업 후 창업을 하겠다고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했다.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능력 부족, 불안정한 생활, 주변 여건 등을 꼽았다.

그러나 실제 창업을 떠나, 현재 창업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나 되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만 닿는다면 창업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창업의 적당한 시기로는 "5년 이후"가 가장 많았고, 3~5년 이내, 1~3년 이내, 1년 이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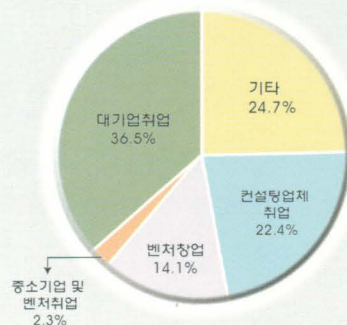
으로 나타나 졸업 후 바로 창업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서히 준비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현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벤처 정신을 배양하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는 75%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비율은 7%에 불과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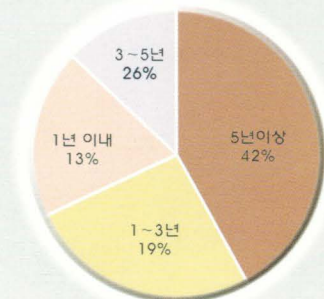
금번 조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 결과다. 비록 벤처 열풍의 쇠퇴와 경기 침체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모험'보다는 일반 기업 취업이라는 '안정'을 택했지만 많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창업'의 횃불이 살아 꿈틀대고 있었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졸업 후 향후 진로는?



창업한다면 언제쯤?



테크노경영대학원, 벤처 정신으로 우뚝 서다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을 이해하는 기술인, 기술을 이해하는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1996년 3월에 설립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올해로 만 6년이 되었다. 1996년 이후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창업하여, CEO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은 10여명 내외. 이중 테크노경영전공의 졸업생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공학전공의 전신인 20여년동안의 KAIST 경영관련 학과 출신 졸업생을 포함할 경우 무려 50명을 훌쩍 넘어선다. 창업과정을 보면, 재학 중에

연구실 혹은 수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창업의 꿈을 키워 졸업 후 바로 창업하거나 일반 기업 취업 후 CEO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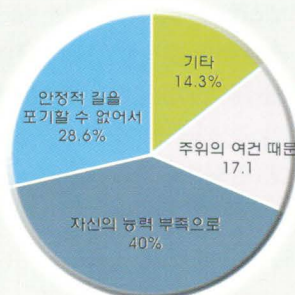
1996년 이후 주요 창업 동문 현황(표)을 보면, 금융, IT,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 대학원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보다 깊이 있는 경영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입학하는 "CEO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재 정리 | 이인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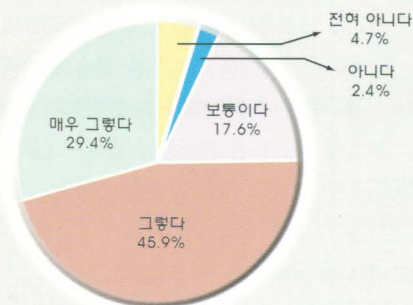
1996년 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 후의 주요 창업 동문들

전 공	창업자	회사명	업 무
테크노경영MBA	김영일 김용희 김태년 이명순 황규성	삼성터보서비스㈜ 몽크몽크 (주)마린디지털 MDM I&C 마이크로 스케일	터보기기관련 전문서비스 재즈전문지 발행 해양분야 B2B 마켓플레이스 운영 통신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 웨이퍼범핑 및 플립칩 패키징
금융공학 MBA	서병기 장홍성	LKFS 시스템 구축 컨설팅 다즌스퀘어	금융 통합리스크 관리 및 통신 장비 개발
경영정보 MBA	김정태	(주)에이전트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이트 운영
경영공학	김상우 이한수 황보열	ICG iBFarm 아시안사인	e Biz 컨설팅 중국진출 지원전문 서비스 전자상거래 조세징수 시스템

창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이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벤처 정신 육성 프로그램

최근의 벤처 이슈는 벤처 기업의 단순한 양적팽창을 넘어 우수한 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의 벤처 관련 개설프로그램을 벤처창업 및 경영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실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단순히 교양과목 수준에서 곁길기식 강 의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설립때부터 벤처정신을 강조해온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차별화된 벤처 특화 수업 및 eBiz Award 등의 행사를 통해 벤처 창업의 주역을 길러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v e n t u r e

2

벤처와 창업 관련 수업

창업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관련과목은 창업을 위한 소양의 빙산일각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업관련 과목은 기본 경영학적 소양 위에 얹혀지는 창업이란 뇌관에 해당되는 과목일 뿐, 진정한 폭발력과 지속적인 역량은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경영학 과목 전반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유능한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족집게 과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개설된 창업과정과 직접관련이 높은 과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관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혁신 관리 는 다른 관리 활동과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기술혁신관리』는 벤처 정신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업에서 제반 생산 및 관리 활동과는 다른 기술혁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다루고, 연구관리, 신제품개발관리 등과 관련된 이슈와 이론, 사례들을 소개한다. 또한 프로젝트와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를 한국적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사이버 벤처』

가상공간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가상공간을 통한 새로운 상업적 기회가 생기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기업들이 틈새시장을 진입하여 급성장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실패하여 퇴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벤처 경영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특히 사이버 벤처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틀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v e n t u r e

『벤처마케팅』

이 과목은 '마케팅 전쟁'의 4대 전략과 전략의 원칙들, 전략선택의 조건과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을 다룬다. 마케팅 전쟁의 이론과 포지셔닝 전략을 첨단 기술 기업에 적용을 시도하며 이론과 성공/실패의 실전 사례를 토론 중심으로 다룬다. 이 과목은 특히 기획 및 경영, 사내 벤처나 신규사업, 마케팅에 관심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기업가 정신과 창업』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벤처 기업을 창업할 때 거쳐야 할 제반 고려사항, 사업성 분석 및 관련 경영지식 등을 익히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신사업 분야를 선택하여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면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따라서 기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들이나 이공학도, 과학기술부문의 연구자, 벤처 경영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관심이 많은 경영자 및 경영학도 등 다양한 계층이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기업에서 신사업 발굴 및 신제품개발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이 사내 벤처 추진 및 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 경영관리기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이 과목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중심인 벤처 기업이 어떻게 생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 발전해 가야 하는가를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함께 일본, 중국 등의 사례/경험을 우리의 벤처 기업 발전과 비추어 보며 이 과정에서 벤처 캐피탈의 역할과 발전 등을 살피으로써 앞으로의 참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방향을 논의해 본다.

『하이테크경영』

이 과목은 지난 수 십 년간 정설로 통용되어 왔던 기술수용 주기모델을 급변하는 불연속성의 첨단 기술 혁신 시대에 기술수용자 집단의 행동과 태도를 구매 심리학적 관점에서 수정 보완한, 첨단 기술 수용 모델의 배경과 이론을 실리콘 밸리의 성공/실패 사례 중심으로 토론 형태로 소개한다.

『신상품경영』

이 교과목에서는 제반 경영 기능들이 참여하게 되는 신제품의 사업화 과정을 다루며, 이를 위해 신상품경영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실제 기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신상품경영과정의 제반활동, 즉 신상품 개념 정립, 개발전략 수립,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설계, 생산과 시장진입 등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실제적응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사례분석도 병행한다.

eBiz Award

MIT의 '50K'와 같은 한국적인 비즈니스 경연대회를 지향하는 eBiz Award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내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결합한 eBiz모델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eBiz벤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 분야의 교육 연구를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e비즈니스 분야에 역량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사업화 하고자 한다. eBiz 모델의 독창성과 사업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수상자들은 실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자금, 기술과 경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추천 등을 받게 된다.

취재 정리 | 송재현, 김문웅기자

현장의 벤처 정신



국내 최고의 eBiz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ICG(Internet Consulting Group). ICG 사장인 김상우 동문(26)은 1998년에 KAIST 경영공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으며, 2000년 ICG를 창업했다.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김상우 동문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와 재학 중 '창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등을 알아보았다.

먼저 동문님의 창업 이전 경력과 ICG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 시절 캠퍼스 21, LG소프트스쿨, 이코퍼레이션 등에서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강의를 했고, 남들보다 일찍 접한 인터넷을 통해 웹네티코리아, 패션플러스, 캠퍼스21 등에서 CTO로서 사회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창업을 준비했고 2000년 1월 1일 (주)인터넷컨설팅그룹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 골드뱅크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사업부 부사장(VP)을 동시에 역임하였으며 코리아텐더라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시킨 후 ICG에 몰두하게 위해 부사장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인터넷컨설팅그룹-ICG는 직원수 60명 규모이며 eBiz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서비스, 웹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삼성, SK, 두산, 아시안 등) 위주의 고객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eBiz사업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그룹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하신 계기는 무엇이며, 창업과 취업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전 정신을 갖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재미와 쾌감에 창업을 결심했는데, 당시 창업환경이 어느 때보다 좋았던 것도 결심을 굳히는 동기가 되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면에서 취업과 창

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창업은 취업에 비해 더 큰 책임감, 더 큰 위험부담, 더 큰 성취욕이 요구되죠. 창업과 취업의 전이가 전직처럼 자유로운 사회가 더욱 멋지지 않을까요? 다만 한국의 대기업 경영자들이 GE의 잭 웰치처럼 인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상하여 창업할 동기를 줄여주는 것도 자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업동기에 경제적 욕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직접 창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컨트롤이 가장 힘든 점이라 봅니다. 누군가의 감시나 질타 없이도 스스로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번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 등 모든 것을 자신이 꾸짖고 반성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고독하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무엇보다 경쟁사와의 싸움에서 지거나, 투자자들의 조기회수 욕구 같은 것들이 압박이죠.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니 좌절하지 말고 제대로 적응하고 대처해야겠지요.

창업하고 일하는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규 교수님의 전자상거래나 이제호 교수님의 벤처, 기술혁신 같은 교과목들은 그 자체가 사업으로 이끌어 주는데 훌륭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보게 되었는데 "커뮤니티 운영 원리"



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각론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KAIST에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일반론 1,2개 과목밖에 없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을 할 기회가 적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보강되어질 줄 믿습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신 동문들간에도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신들이 대거 창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ICG의 컨설팅사업본부 이사로 와있는 형용준 이사는 싸이월드, 세이큐피드를 창업한 바 있고, 이한수 씨는 ibfarm.com을 창업하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저도 패션플러스, 닥스클럽에 이어 ICG를 창업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수한 IT업체에는 KAIST 전산과나 경영공학, 산업공학, 산업디자인과 졸업생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제휴/영업 시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창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시겠습니까?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무조건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사서도 고생한다 하는데, 망할 것, 힘들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인생이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취재 정리 | 김승하기자

3

CEO재학생이 말하는 벤처 정신

최고의 경영대학원을 자처하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과 벤처 정신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3명의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들(테크노경영 MBA 1년차 이진희씨, 오경환씨, 테크노경영 MBA 2년차 박영조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이들은 모두 입학 전에 창업을 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떠나 있는 이진희 씨를 제외한 2명은 지금도 회사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소위 '아주 바쁜' 학생들이다.

기회는 도전자에게만 온다?

먼저 창업의 계기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역설적으로 3명 모두 우연히 기회가 닿아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다. 그 중 오경환씨의 예를 들어보자.

"전통적인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보다 큰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검증된 구성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오면 나도 하겠다!'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계기나 기회가 왔다고 해도 과연 몇 명이나 선뜻 나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기회인줄도 모르고 넘어갈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위의 3명은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기회를 기회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일까.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능력이라기 보다는 마음가짐에 가까워 보인다(물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의 일부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모여 벤처 정신이 커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어 내지 않을까 싶다. 이진희씨가 말하는 벤처 정신에 대해 들어보자.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이 벤처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벤처 정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남들과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아쉬움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느껴보니 막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 전반적으로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항해를 하는 도전자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사회에 대한 아쉬움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욱 커보였다. 그 중에서도 박영조씨의 대답은 우리 사회의 폐쇄성과 조급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약간은 씁쓸했다.

"창업멤버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 너무 혹독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forgiving opportunity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기업가가 배출되고 성공 신화를 낳은 것은 바로 실리콘밸리가 실패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창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용기와 경험은 고려하지 않고, 실패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실정이나 재창업이나 재취업이 현실상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forgiving opportunity를 인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사회 제반 분위기뿐만 아니라 오경환씨의 경우 창업과 회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력수급, 펀딩 등)의 부재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다시 학생으로!

'한참 사회에서 잘 나가던 그들은 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왔을까?'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기대했지만 의외로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인터뷰

에 응한 3명은 벤처 경영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입학 전 스스로 느끼고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다양한 사고의 틀과 사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에 대한 갈증이 남들보다 컸었던 그들에게 기술과 경영의 결합이라는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필연이었다.

인터뷰 결과 학생인 그들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귀착이 되었다. 첫째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실무와 이론을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이 모두가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성취하기 힘든 목표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보다 많은 산학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대학원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비춰졌던 벤처 기업에 대한 열정이 한시대의 유물로만 남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묻지마식의 투자와 성급한 도전들이 다시 횡행하길 바라는 사람도 없다.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의 증가?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의 확충? 단순히 숫자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규모의 확장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깨달았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어쩌면 꿈과 도전과 추진력이며 벤처 정신을 갖춘 젊은이일지도 모른다. 꼭 벤처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활기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 활기의 원천에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있을 것이다.

취재 정리 | 김정배기자

2002년 2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졸업 논문 리스트

2001학년도 전기 KAIST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5일 대전본원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총 230명(박사 16명, 석사 182명, 학사 32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산업의 다방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의 논문 리스트를 소개함으로써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핵심 연구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 박사(경영공학)

학위 수여자	지도교수	논문 제목
길영준	이진주	기술학습관점에서 본 기술개발 내재화 메커니즘에 관한 사례연구
길인수	한인구	전자상거래를 위한 링구조 기반의 효율적 다자간 모듈러 공정거래 프로토콜 개발
김경섭	한인구	기업신용분석을 위한 통합형 지능 시스템
김선경	전덕빈	상품의 상호 연관관계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요예측모형 개발 및 응용
김옥남	한민희	계층적 시장구조에서의 광고 경쟁
문개현	허순영	데이터추상화와 퍼지 관계의 통합을 통한 협력적 질의 응답에 관한 연구
민태기	한민희	경쟁상황에서의 비선형 가격전략(인터넷 가격 전략에의 응용)
배경일	허순영	가상조직에서의 동기화된 프로세스 정보 공유를 위한 연합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손미애	이재규	지능형 웹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위한 확장형 규칙 표신언어(XRML) : 설계원리 및 응용
신현철	김병천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이용한 Disease Prevalence 추정에 관한 연구
안영환	안병훈	녹색제품에 관한 두 가지 고찰 : 환경마크기준과 내구재 업그레이드의 전략적 유인
이동원	김성희	상이한 목적의 구조를 가진 공급사슬의 모델링과 분석 : 항만공급사슬에의 적용
이용균	김성희	범위자료의 자료포락 분석 방법론 개발과 국내 종합병원으로의 적용
조일순	김영걸	IS조직에서의 객체지향기술의 동화에 대한 핵심결정요소 : 프로그래밍 언어관점
최병남	김영걸	공간데이터베이스 다중 추상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홍경권	김영걸	ERP 성공을 위한 조직 및 구현 요인에 관한 연구

>> 석사(우수논문)

학위 수여자	전 공	논문 제목
강현모	경영공학석사	e-Coupon도입으로 인한 couponing behavior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박남정	경영공학석사	이산형 위험모형을 이용한 기업도산 예측 연구
이성호	테크노경영MBA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광고의 효과 연구 - 제품 유형과 Personality 일치도를 중심으로
차광섭	경영정보MBA	인터넷 자동차 시장의 고객 특성에 관한 연구
박윤정	금융공학MBA	부도 상관관계를 고려한 채권 담보부 증권(CBO) 가격결정의 실증연구
고충림	통신경영MBA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법적책임 -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명재규	환경경영MBA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리스트는 박사 졸업생 전원, 석사 우수논문 수상자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화 프로그램 : 교환학생과 해외 인턴십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Management
UTBM

외국 대학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사고의 폭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힘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돌아온 3명의 학생들이 있다. 2001년 테크노경영대학원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운데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와 태국의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 각각 선발되었던 이택준씨(테크노경영 MBA 2년)와 이상윤씨(경영공학 석사 2년), 그리고 2001년 대전 KAIST 본원의 국제협력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운데 프랑스 공과 대학인 UTBM에 선발되었던 양진희씨(경영공학 석사 2년)가 바로 이들이다. 또, 김혜원씨(경영공학 석사 2년)는 뉴욕 소재 UN 본부의 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하고 돌아왔다. 따라서 본 코너에서는 한 학기 동안 각기 다른 외국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서, 또한 국제기구 인턴으로서의 알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고자 한다.

취재 정리 | 김문용기자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이택준, 이상윤, 양진희씨와의 인터뷰



이 택 준
테크노경영MBA 2년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중국과 중화권의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중국어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그들의 경영 방식인 관계 비즈니스를 접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에 무지한 상태로 대만에 가서 처음 1달 정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학센터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차차 나아지게 되었지요.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현지 학생과 외국 및 교환학생이 수업을 같이 받았습니다. 수업 외 시간은 주어진 세미나 룸에서 팀 작업을 하거나 수영, 농구 등을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온 교환학생과 현지 학생들과의 대만 남부로의 여행 및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비록 한학기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화권의 일부인 대만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고, 가까운 미래를 위해 중국어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던 점, 또한 무엇보다도 작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중국어를 미리 공부하면 유리할 것 같고, IMBA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여러 프로모션 및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좋은 global network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 윤

경영공학 석사2년 >>

태국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SOM(School of Management)

98년도 대학교 3학년 때 해외 인턴십으로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느낀 점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의 땅을 탐방하는 것도 의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하나인 태국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게 되었지요. 수업은 영어로 하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토론 및 프리젠테이션 위주였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는 중국 및 베트남 학생들과 주로 탁구, 수영, 자전거 타기를 많이 즐겼습니다. 한편, 프랑스 학생들은 대부분 축구에 관심이 많았기에, 2002월드컵과 한국 문화를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이로 인해 친해졌죠. 주말에는 태국 여행책을 가지고 외국 학생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결국 교환학생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고,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고자 한다면, 우선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역사 및 경제상황 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진 희

경영공학 석사 2년 >>

프랑스

UTBM

(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Belfort-Montbéliard)

예전부터 유럽에 가 보고 싶었구요. 또, 제 학부 전공이 산업공학이었는데, UTBM의 생산경영시스템(GSP)과가 프랑스의 동일 5년제 Ecole 중에선 최고 수준이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초보자 수준의 불어실력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수업은 총 6과목을 들었고, 수업 외에는 간간히 학생회에서 하는 파티에 참석하고, 바캉스 때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인데다 프랑스 사람들이 워낙 친절해서 별로 힘든 건 없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니 문화의 차이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시야도 많이 넓어진 것 같네요. 저는 한 학기만 하고 돌아왔지만, 만약 1년을 있게 되었다면, 한 학기 정도는 수업 말고 프랑스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을 거예요. 현지 외국회사에서 잠깐 일해보는 것도 수업과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외에도 UTBM이 교류하는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과정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확실히 하고 갔으면 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는 것도 내가 말로써 표현을 못 한다면 결국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국제기구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김혜원씨와의 인터뷰



김 혜 원

경영공학 석사 2년

저는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뉴욕에 있는 UN 본부의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부서를 잠깐 소개하자면, "경제, 사회, 환경"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취지 하에 설립된 부서이지요. 평소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활동 및 국제기구 취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어요. 국제 기구의 경우 정기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지원자격이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 이후에 환경 정책/경영을 공부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국제 기구 인턴십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실 국제 기구 인턴십에 관심이 있는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의 경우, 적극적인 학교지원을 받는 타 국제대학원 학생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 국제 기구 관련한 외교통상부 소속 한국대표부에 문의를 해 보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내 부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기구 관련 경험이 있으면서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선 인턴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 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국가 보고서 검토 작업, 유엔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참석 및 보고서 작성, 개인 연구 프로젝트 수행이었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국제공무원, 외교관, 여성운동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선발되어 온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20대 최고의 기억이 아닐까 해요. 우리 학교 학생의 경우 대외인지도가 있는 학교이니가 국제기구 인턴십에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기구에 관심이 있다면 인턴십은 관련 분야의 인맥을 형성하고, 업무를 미리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구 및 교과과정과 연계가 힘든 경우에는 시간 및 금전적 비용도 상당하므로 기회비용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기구의 경우는 취업은 물론이고, 인턴십 역시 기회를 얻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또 만약 국제기구에 취업을 원하는 분이라면 영어 외에 불어, 스페인어 등의 제2 외국어를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제 기구는 연금 및 가족수당을 제공하며 평생 직장이라고 할 만큼 매우 안정된 근무 생활을 보장하는 곳이지요. 게다가 채용이나 근무조건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이 없으므로 여성들이 특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관료주의가 만연한 곳이어서 개인의 뚜렷한 소신과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의욕적으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

- 국제기구의 인턴십은, 대학(원)생들이 경비를 본인 또는 추천기관이 부담하는 조건 하에 주요 국제문제와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2개월이상 훈련 받는 제도이다.
- UN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웹사이트
- <http://www.un.org/esa/sustdev>

양 윤 석

경영공학 석사 2년

미·루·나·무

미루나무가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거미줄을 걷어내듯
 눈 뜬 아침
 모든 빠른 것들을 뒤로 하고
 모든 느낌 같은 고요 속으로. 그렇게
 들판을 향해 방문을 열었다.

놓쳐버린 완행버스가
 주고간 한시간이
 뿌리고 간 흙먼지 만큼이나
 정오의 햇살에 빛난다.
 만물상 평상에 앉아
 한낮의 푸근해서 오히려 낮선 공기에
 조금 어지럽고, 시간은 거슬러 흐른다.

관성은 생각보다 견고하다.
 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던가.
 아마도 그렇게 바람에 날려온 이파리 하나.
 떼어다 손바닥에 얹자
 금새 손끝을 간지럽히며
 날아오르는...
 풀잎이 아닌 바람의 궤적.
 이제 좀더 서늘한 가슴으로 수수히.
 길고 느린 시간 속에
 내 두발로 울곧게 서야겠다.

지나간 시간들이 거칠어도
 바위는 언제까지나 긴 시간을 내려다 보며
 조금씩 자신을 드넓은 대지 속으로 흡어간다.

시내 새뜻한 찬물에 세수 한번 하고,
 지금 미루나무 바람 그늘 아래 섰다.

AIM 출신들, 은행장 발탁 줄이어

홍석주 조흥은행장 취임 이어

이강원 동문도 외환은행장에 선임

조흥 위성복 행장, 국민 김정대 행장 등 전현직 시중 은행장 14명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은행장 정보화 교육산실로 자리잡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AIM) 과정이 최근들어 또다시 두명의 동문 은행장을 배출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3월말 취임한 홍석주 조흥은행장. AIM과정 11기 동문인 홍 행장은 1급 부장을 거치지 않고, 임원이 된지 불과 1년만에 은행장에 오른 금융계 젊은 40대 CEO로 화제가 되고 있다.

홍 행장은 "젊고 역동적이며 국제적인 수준의 은행을 만들겠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전문성과 경륜을 적절히 조화시켜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예컨대 투자부문에서는 외부나 내부 전문가를 적극 발탁하되 영업부문에서는 경륜과 경험을 겸비한 선배들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시가총액 10위인 조흥은행 주가를 재임기간중 반드시 시가총액 5위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AIM 동문으로서 과정수료후에도 무료 업그레이드 교육이나 온라인 동문회, 조찬모임 등에 간간히 참석한다는 홍 행장은 정보통신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중 AIM 과정을 앞서 수강한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는 5개월여 동안 진행된 AIM 과정 교육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한명의 동문은 최근 차기 외환은행장으로 선임된 AIM 14기 이강원 LG투신운용 대표이사. 4월 12일 외환은행 이사회에 의해 은행장으로 내정된 이강원 동문 역시 금융계의 젊은 기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강원 대표는 "은행 구성원들이 '이런 결정이 은행의 가치, 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훈련을 쌓아야 '돈을 버는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은행원들은 증권 보험사와 경쟁하면서 금융상품을 팔고,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상담사가 되어야 한다"며 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원 은행장 내정자는 4월 30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취임할 예정이다.

이처럼 AIM 출신 동문들의 은행장 취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AIM 16기에는 김종창 기업은행장이 열성적으로 수강중이며, 16기 동문회장을 역임하는 등 AIM 과정의 명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은행장 되고 싶으세요?

"KAIST로 가세요!"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졸업생 잇달아 CEO에

은행장, CEO 등 은행과 금융계 최고직에 잇달아 취임하는 AIM 출신 동문들이 최근 들어 KAIST로 몰려드는 추세다.

이강원 대표이사는 LG투신운용 대표이사, 4월 12일 외환은행 이사회에 의해 은행장으로 내정된 이강원 동문 역시 금융계의 젊은 기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강원 대표는 "은행 구성원들이 '이런 결정이 은행의 가치, 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훈련을 쌓아야 '돈을 버는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은행원들은 증권 보험사와 경쟁하면서 금융상품을 팔고,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상담사가 되어야 한다"며 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원 은행장 내정자는 4월 30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취임할 예정이다.

홍석주 조흥은행장은 1급 부장을 거치지 않고, 임원이 된지 불과 1년만에 은행장에 오른 금융계 젊은 40대 CEO로 화제가 되고 있다.

홍 행장은 "젊고 역동적이며 국제적인 수준의 은행을 만들겠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전문성과 경륜을 적절히 조화시켜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예컨대 투자부문에서는 외부나 내부 전문가를 적극 발탁하되 영업부문에서는 경륜과 경험을 겸비한 선배들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시가총액 10위인 조흥은행 주가를 재임기간중 반드시 시가총액 5위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홍석주
조흥은행장



이강원
외환은행장(내정자)



김종창
기업은행장

동아일보, 2월 5일자 기사



홍 석 주
조흥은행장



이 강 원
외환은행장(내정자)



김 종 창
기업은행장

- 광주서중,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졸업(MBA)
- 1976년 조흥은행 입행
- 국제부.런던지점 대리
- 종합기획부 과장, 부부장
- 리스크관리실장, 기획부장
- 상무(재무기획본부장)
- 2002년 3월 29일 조흥은행장 취임
- 김인자 여사와 1남1녀

- 서울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 태국 Thammasat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3~1995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동아시아 금융전문위원
- 1995~1999년 기아포드할부금융 대표이사 사장
- 1999~2000년 LG투자증권 전무이사
- 2002년 4월 30일 외환은행장 취임 예정
- 박영희 여사와 2남1녀

- 대창고, 서울대 상학과 졸업
-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과 석사
- 1970~1976년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관
- 1976~1992년 재무부 근무
- 1992~1996년 駐영국대사관 재무관(부이사관)
- 1996~1998년 재정경제원 근무
- 1998~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
- 2000~2001년 금융감독원 기획담당 부원장
- 2001년 5월 ~ 현재 중소기업은행장 재직중
- 권선자 여사와 2녀

AIM: 최고정보경영자과정

AIM 15기 수료식(1월 30일)



AIM 제15기 수료식이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15기 수료자는 총 38명으로 이번 최우수 논문상은 김부길 동문에 수여되었다.

AIM 16기 입학식(3월 6일)



AIM 16기가 최중현 홀에서 입학식을 갖고 총 20주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교육 기간 동안 이들은 e비즈니스, 인터넷 경영, 지

식 경영, 지식 자산, 전자상거래, ERP, 데이터 베이스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아울러 매주 2시간씩 노트북 PC를 통한 컴퓨터 실습을 받게 된다. 이번 16기는 김종창 기업은행장, 김진배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 조영환 LG마이크론 대표이사 등을 포함하여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AIM 16기 워크샵(3월 8~9일)



입학식에 이어 16기 1차 워크샵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KAIST 의과학센터를 견학한 후 유육준(생물 과학)교수의 "기능유

전체 연구와 바이오텍 벤처" 강의와 홍창선 KAIST 원장의 "한국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또 반별 비즈니스게임을 통해 반원간의 협력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AVM: 최고벤처경영자과정

AVM 8기 입학식(3월 15일)

AVM 8기 입학식이 최중현 홀에서 열렸다. 이번 8기 학생은 총 35명으로 구본용 KTB 네트워크 이사, 김우진 리눅스원 대표이사 등 대부분이 벤처기업 출신이었고 KT(한국통신)에서 온 허태경 팀장은 유일한 대기업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AVM 8기 워크샵(3월 29~30일)

AVM 8차 워크샵이 1박 2일간 대전 유성구의 호텔 리베라에서 열렸다. 워크샵 첫 날에는 이 과정의 성격을 반영하듯 KAIST 신기술 창업 지원단을 견학했고 오후에는 특허청의 이은철 심사관으로부터 "인터넷상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기술 동향 및 특허침해 논쟁"을 주제로 강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KAIST 유육준 교수와 양동열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ATM: 최고 텔레콤 경영자 과정

ATM 1기 입학식(3월 14일)

제 1기 ATM 과정 입학식이 최중현 홀에서 열렸다. 이번 1기 입학생은 20명으로 대부분 SK 텔레콤, KT(한국통신), LG 텔레콤 등 국내 주요 통신사 출신 임원이 주를 이루었다.

ATM 1기 워크샵(3월 22~23일)

ATM 1기 워크샵이 대전 유성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렸다. 1박 2일 동안의 워크샵 기간중 참석자들은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를 방문했고 KAIST 경종민 교수로부터 "SoC 기술동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ATM 1기생들의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CKO:

최고지식경영자 과정

CKO 신년하례회 겸 조찬모임(1월 31일)

CKO 1기 주관 CKO총동문회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신년하례회를 겸한 조찬모임이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은 "2002년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가졌다. CKO과정 동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찬 모임은 올해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며 매달 기수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CKO 8기 입학식(2월 28일)

CKO과정 제 8기 입학식이 최종현홀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의 입학생은 총 37명이며 앞으로 총 15주간 진행되어 6월 13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CKO 8기 워크샵(3월 15~16일)



CKO과정 조찬 사진

3월 15일에는 한인구 교수의 지도하에 반별 비즈니스 게임이 열렸고, 이어 한인구 교수의 논문작성에 관한 특강과 반별 지식경영 클리닉이 있었다. 16일에는 참석자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리닉이 있었다. 16일에는 참석자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AIC:

최고사내컨설턴트 과정

AIC 2기 입학식(3월 5일)

제2기 AIC 과정 입학식이 지난 3월 5일 최종현 홀에서 열렸다. 이번 2기에는 각 기업체의 팀장급 중간관리자들 49명이 입학했다. 본 과정은 문제해결 능력과 각 전문 분야별 최신의 변화관리기법을 교육하여 기업의 Pre-CEO의 자질을 키우는 과정으로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Andersen, Accenture, A.T.Kearney, Entru Consulting, E&Y, PwC Consulting, William M. Mercer, 삼일회계법인 등과 협력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선진 컨설팅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교육 받게 된다.

HMC: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 전문가과정

HMC 1기 워크샵 /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현대자동차 과정 수업 사진

입학식이 열리기 전에 먼저 1차 워크샵이 2월 15~16일 현대자동차 파주 연수원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2월 25일 현

대 자동차 양재동 본사에서 열렸고 다음 날인 2월 26일에는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 경영관 최종현 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HMC 과정 설립 취지 및 향후 발전 계획

이번 학기에 새로 신설된 HMC 과정은 부문별 핵심 전문가 육성, 현장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수준의 지식 학습 등 세 가지 취지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장에서 대리까지의 직급 중 선별된 직원이 참여하게 되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앞으로 연도별 180명씩 5기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는 매년 30명씩 5년간 15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HMC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

HMC 과정은 기술경영 전문가 과정, 생산경영 전문가 과정의 두 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과정 참여자들은 3학기로 구성된 12월까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생산전략, 기술 혁신 전략, 수요 예측, 회계, 재무, 마케팅, 경영전략, MIS, SCM, 재고/물류관리 등 경영학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 배우게 되며 마지막 두 주간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발표회까지 가질 예정이다.

취재 정리 | 김승하기자

재 · 미 · 있 · 는 · 코 · 너

스포츠 MBA?!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스포츠MBA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는가? 스포츠MBA는 작년 3월 신학기 개강과 동시에 창설된, 현재 설립 2년째를 맞고 있는 최첨단 신생학과로서 타 학과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점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 MBA는 지난 해 같은 연구실을 쓰던 학생들이 모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서로 자신들을 재미삼아 '스포츠MBA'라고 부르던 것이 공식 명칭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MBA에 입학하기 위한 규정은 제법 까다롭다. "가입조건이요? (웃음) 음.. 우선 하루 1시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어떤 운동이든 해야 합니다. 저희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스포츠MBA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스포츠MBA 학생이 되려면 적어도 한 종목이상 정기적인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운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책임교수(?) 격을 맡고 있는 고재연(테크노경영 MBA 2년) 학생의 말이다.

운동을 하고 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스포츠MBA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선 무엇보다 체력이 튼튼해진 것. 한진규(테크노경영 MBA 2년) 씨는 운동의 효과에 대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체력이라고 말한다. "일단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 공부의 특성상 많이 바쁠 때는 며칠씩 밤새기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다음 날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했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부터는 피로도 금방 회복되고, 피로가 쌓여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동안 직장 다니면

서 부실해졌던 신체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뱃살도 많이 줄고, 근육도 붙어 몸매관리도 자연스럽게 된 것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야 할 공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포츠MBA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오히려 운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그야말로 소일거리 개념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하나의 투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MBA 학생들은 운동도 학점으로 계산해서 받아들인다. 대다수 스포츠MBA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듣는 수업 이외에 골프, 테니스, 헬스, 등산, 수영 등 운동으로만 5-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 공부에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 비록 공부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의 양은 줄어들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져 운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공부가 더 잘된다고 한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서(Anima Sana In Corpore Sano) 비롯한다고 하였다. 비록 말하지는 않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취재 정리 이인팔기자

